

“비싸도 너무 비싸...올 여름 휴가 포기할래요”

성수기 앞두고 항공료·숙박비 천정부지...농수축산물값 급등에 캠핑도 엄두 못내

7월8초(7월 말~8월 초)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지만 살인적인 물가에 휴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권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아 해외여행은 연감생심(焉敢生心), 국내 항공료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와 해외여행 비용 부담으로 국내 주요 관광지 휴가객이 몰리면서 호텔과 펜션 등 숙박업소 비용도 크게 치솟았다. 여행비 부담이 커져 도심 근교로 캠핑을 가고 싶어도 삼겹살과 채소 등 농수축산물 가격과 외식비도 경종 뿜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휴가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8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6월 기준)에 따르면 국제항공료는 전년동월대비 21.4% 올랐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2008년 10월(23.1%) 이후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국내항공료 역시 19.5%나 오른 상태다.

시택이 있는 강원도로 여름휴가를 계획했던 유모(여·38)씨도 비싼 항공료와 물가로 일찌감치 휴가를 포기했다고 한다. 오는 30일 광주공항에서 양양공항으로 가는 성인 1명의 항공권은 12만9900원으로, 다음 달 1일 되돌아오는 항공권은 1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왕복 26만원인 셈으로, 유씨의 자녀와 남편의 항공권까지 더하면 총 항공료는 76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항공료만 80만원에 육박하는데 강원도에서 렌터카를 빌리고 외식비까지 생각하면 짧은 휴가에 200만원은 깨질 것”이라며 “예전 같으면 해외여행 경비 수준이다”고 말했다. 제주도 여행도 만만치 않다. 광주에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은 예약도 힘들 뿐더러, 편도 항공권 가격만 1인 10만~16만원 선이다. 제주의 호텔이나 펜션 등 4인 가족의 1박 숙박 요금도 성수기인 현재 40만~150만원대에 달한다.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권 역시 동남아 주요 관광지 왕복 항공권은 60만원대부터 시작하고, 최근 환율이 1300원을 넘어지면서 현지에서의 경비 부담도 커졌다. 국내 여행지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휴가철 국내 관광지 사람들이 몰리면서 성수기 숙박비도 크게 올랐다. 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간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 인근으로 처가 식구들과 단체로 여름휴가를 떠난다는 노모(40)씨는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오래된 펜션의 12인 숙박비가 하루 66만원으로 이틀간 132만원에 달한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마저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했다. 최근 지어진 숙박시설들은 최신 시설과 휴가철 성수기를 앞세워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을 넘는 곳이 수도룩하다는 것이다. 노씨는 “숙박비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기름값도 비싸 광주에서 대전을 오가는 주유비도 걱정이데 다른 물가도 모두 올라 휴가지에서 밥을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울 지경이다”고 말했다. 휴가비용이 부담스러워 도심 인근으로 캠핑을 떠나 가족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해도 급등한 농수축산물 가격 때문에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이날 오전 광주의 한 대형마트를 둘러본 결과 적상추(200g)는 3980원, 풋고추 8개짜리 1봉은 2380원이었다. 삼겹살 170g짜리는 2420원으로, 삼겹살은 100g에 무려 3580원이나 됐다. 삼겹살은 1년 전 2871원보다 27.08%(763원) 올랐고, 1800원이었던 적상추는 121.1%(2180원)이나 오른 셈이다. 이처럼 교통비와 숙박, 외식 등 모든 물가가 급등, 여기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휴가를 포기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직장인 전모(여·32)씨는 “자녀 어린이집 방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월8초에 휴가를 냈는데, 극성수기 물가도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올라 엄두가 나질 않는다”며 “코로나도 다시 확산하고 있어 이번 휴가 시즌에는 아이와 그냥 집에서 쉴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가능

2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13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창구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광주은행을 비롯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3개다. 뱅킹 앱으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으로, 하반기에는 대부분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은행을 방문, 직원이 QR코드를 제시하면 스마트폰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해 은행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 절차가 이뤄진다.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뱅킹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연계 호출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은행 외 다른 금융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

국내 금융시장 ‘안도’...증시 상승·환율 급락

한미 금리역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자 28일 국내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준은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1.75%에서 2.25~2.50%로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미국 금리 인상과 한미 금리 역전을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면서 주가와 원화 가치는 동반 상승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74포인트(0.82%) 오른 2435.27에 장을 마쳤다. 증가 기준 2430선 회복은 지난달 17일(2440.93) 이후 29거래일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091억원을 순

코스피, 한달만에 2430선 회복 환율, 보름만에 1300선 밑으로 당국 “시장 영향 제한적”

매수해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280억원, 575억원을 순매도했다. 달러 강세 약화도 외국인 자금 유입을 자극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7.2원 내린 달러당 1296.1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300원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7월(1299.8원) 이후 15거래일만이다. 하락 폭은 지난 5월 30일(17.6원) 이후 가장 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2포인트(0.33%) 오른 798.32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412억원을 순매수해

지수를 방어했다. 외국인도 기관은 각각 67억원, 295억원을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하루 거래대금은 각각 9조145억원, 5조8192억원 수준이었다.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이 9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 23일(약 10조2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세 차례 역전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라 자본 유출입, 환율 등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드론·무인방제기...농업벤처 제품 한자리에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 개막

“2022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가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사건> 28일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열린다. 광주전남벤처협회는 곡창지대인 호남의 농산업과 농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전시회를 특별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천풍무인항공의 농업용 드론과 ㈜사론테크의 스마트팜 시스템, ㈜하이룸의 비닐하우스 온풍기 및 무인방제기, ㈜정성택의 대형 복합기, ㈜희망농기계축산기 등 광주·전남 농업벤처기업들의 최신 농기자재를 선보여 지역 농업벤처의 발전 방향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광주전남벤처협회 관계자는 “ICT를 활용한 미래 첨단 스마트농업은 우리나라 농업벤처를 이끌어갈 중요한 사업으로 호남은 국내 농업시장의 상



당 부분을 담당하는 곡창지대”라며 “이번 전시회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기자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KDI “금리상승에 주택 매매 정체·가격 하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분간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 매매가 정체되고 주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35.27(+19.74)
▲ 코스닥	798.32(+2.62)
▲ 금리(국고채 3년)	3.130(+0.040)
↓ 환율(USD)	1296.10(-17.20)

택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8일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과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분간 주택 매매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매매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내외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KDI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매매와 전세 가격의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의 매매·전세 가격 증가율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약 9개월간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분기 유형별 주택매매 가격은 아파트가 전분기보다 0.16% 하락했고, 연립·다세대주택(0.09%)과 오피스텔(0.10%)도 상승세가 둔화했다. KDI는 “기준금리 상승 배경인 물가 상승, 높은 건설비용 등은 임대료에 상방 압력으로서 서서히 작용할 수 있으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추석 선물 미리 예약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8월1~18일 진행하는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서 영광 굴비와 완도 전복 등 지역 특산품을 2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모델들이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광용합기업 청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

광주광산업진흥회, 복구와 추진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주시 복구와 ‘2022년 지역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광용합산업 맞춤형 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복구 소재 광용합기업과 청년 및 구직자들의 일자리를 연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복구에서 3억3000만원을 지원 받아 복구 관내 우수 광용합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광용합기업 18개사에 청년 18명을 일자리 매칭해 만 39세 이하 정규직 청년 신규 채용시 최대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인건비와 교육을 지

원, 향후 3년차에 접어든 청년에게는 1000만원의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회는 취업자들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애로사항 청취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 상반기 간담회 때 사업 참여 전반에 대한 기업 및 청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81.25%로 높게 나타났다. 진흥회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광용합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년 및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100여개 기업들이 추가 지원 문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광용합 분야 이외 민선 8기 전라산업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